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 사업 협의 -김계환 부연구위원 외(국제산업협력실)

1. 출장개요

○ 참가자 (2명):

성명	소속부서	직급	출장기간	비고
김도훈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8월9일-8월14일	
김계환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	"	

○ 출장국가: 알제리 (알제)

○ 출장목적: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 사업 협의

○ 2008년 8월 10일(일) - 8월 12일(화) 3일간 알제리 산업투자부 회의실에서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 사업 협의 개최(구체적인 토론 내용은 <부록> 참고)

참석자

○ 알제리측: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 자문관 Hadjira Touahmi 여사, Bukhlia Hassane 교수 등 산업개발정책 입안 관련 교수 및 공무원 10여명

- 한국측: 산업연구원 김도훈, 김계환
KOICA 김지희 대리
대사관 정해웅 대사 및 대사관 요원 1인

2.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 사업 협의 내용

- 한국측과 알제리측은 3일간의 협의를 거쳐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 사업의 틀과 주요 방향 및 하위 사업 내용을 결정함.

(1) 2차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제목은 ‘한-알제리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자문과 협력’으로 함.

-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알제리와 공유하여 알제리 산업발전 정책 입안에 기여하고, 둘째 알제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음.

- 사업의 실행기간은 2년 (2008-2009년)으로 함.

- 사업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미화 1백50만 달러(한화 13억 8천만원)로 충당함.

- 사업의 실행 기관은 한국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알제리측은 산업투자부(MIPI)임.

(2) 사업의 내용과 범위

사업의 주요 방향

○ 양측은 1차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그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알제리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한 방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함.

- 첫째 전국적 차원의 알제리 산업개발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알제리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첫째 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한-알제리간 산업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 산업 및 기업의 알제리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망분야의 경우 알제리의 대 한국 IR을 지원함.

- 이러한 전반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2차 사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7개의 하위사업으로 이루어짐.

- 1) 산업 클러스터 개발
- 2) 산업별 IR
- 3) 수출 진흥
- 4)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5) 해외투자유치(FDI)
- 6) 인력개발(HRD)
- 7) 알제리 산업조직 재편 작업(SED)에 대한 검토

- 하위 사업 (3)-(6)은 산업클러스터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즉 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에 해당함.

- 동시에 산업 클러스터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일종의 'pilot cluster'를 제시하고 차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대 적용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전국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가짐.

- 산업별 IR은 개발될 산업 클러스터에 유치가능성이 높은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 기업 중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여 한-알제리간 투자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각 하위사업의 구체적 내용

1) 산업 클러스터 개발

이 하위사업은 산업 클러스터의 설치와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포함함.

- 산업클러스터로 제안된 지역의 개발 조건 분석
- 산업단지과 이 단지에 적절한 산업의 선정
- 알제리 대표단의 한국 및 중국 클러스터 답사
- 산업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작성
- 클러스터 마케팅 전략과 실행 계획 작성

2) 산업별 IR

이 하위사업은 선별된 산업(섬유, 기계산업)에서 알제리의 사업 환경을 검토하고 이 산업에서 한국의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함.

- 해당산업에서 알제리의 산업환경을 분석
- 해당산업에서 알제리가 갖는 비교우위와 시장확보 가능성 분석
- 알제리 전문가의 한국 산업단지 시찰
- 한국에서 관련 공무원, 산업계 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개최

3) 수출 진흥

이 사업은 알제리 수출진흥청(ALGEX, 한국의 KOTRA에 해당)의 역할을 증진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될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역할의 구체화를 위한 기술 지원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포함함.

- 개발된 산업클러스터의 수출 역량에 대한 검토
- ALGEX의 역할에 대한 자문
- ALGEX 지역 사무소를 산업클러스터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의 역할 신장을 위한 자문
- 알제리 전문가의 한국과 홍콩 관련 기관 방문을 조직

4)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본 사업은 개발될 산업클러스터 내에 지역혁신시스템(RIS)를 도입하는 문제와 전국적 수준에서 RIS 구축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포함

- 산업클러스터 내에 효율적인 RIS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산업 클러스터 내에 RIS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
- 전국적 수준에서 RIS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
-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술 지원
- 한국, 중국 및 타이완 관련 기관 방문 및 노하우 공유

5) 해외투자유치(FDI)

본 사업은 국가투자개발청(ANDI)의 역할 신장과 산업클러스터 내에 ANDI의 기능을 결합하기 위한 기술 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가짐.

- 개발될 산업클러스터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지는 유인에 대한 연구
- ANDI의 역할에 대한 자문

- 산업클러스터 내에 ADNI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자문
- 개발된 산업클러스터에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
- 한국 및 중국 스터디투어

6) 인력개발(HRD)

본 사업은 알제리의 HRD 기관의 기능을 신장시키고 산업클러스터 인근에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지원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함.

- 알제리의 HRD 기관의 역할 신장을 위한 제안(직업 훈련원에 초점을 둠)
- 개발될 산업클러스터의 생산활동과 연관된 특정 직업 연수원의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문
- 한국과 대만의 인력개발 시설 견학

7) 알제리 산업조직 재편 작업(SED 설립작업)에 대한 검토

본 사업은 알제리가 추진 중인 산업조직 개편 작업을 전자산업에 한정하여 검토 평가하고 개편 계획의 실현을 위한 권고 사항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알제리 전자산업의 잠재적 경쟁력 분석
- 전자산업 산업구조 개편 프로그램 검토와 평가
- 알제리 전문가의 한국 스터디투어

(3) 사업진행절차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 측은 한국 전문가의 자문, 알제리 파견 및 알제리 전문가의 초청연수를 조직해야 하며 또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한국 측 전문가는 연구자, 관련 산업계 담당자, 관련 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총25명이 투입될 것임.

사업분야	투입 전문가 수
(1) 산업 클러스터	5
(2) 산업별 IR	4
(3) 수출 진흥	3
(4) 지역혁신시스템(RIS)	5
(5) 해외투자유치(FDI)	3
(6) 인력개발(HRD)	3
(7) 산업조직전략 검토	2
총 인원	25

- 한국 측 전문가는 알제리에 파견되어 해당 분야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할 것이며 인원과 기간은 아래와 같음.

사업분야	전문가 수	기간
(1) 산업 클러스터	4	2주
(2) 산업별 IR	2	2주
(3) 수출 진흥	2	2주
(4) 지역혁신시스템(RIS)	3	2주
(5) 해외투자유치(FDI)	2	2주
(6) 인력개발(HRD)	2	2주
(7) 산업조직전략 검토	2	2주
총 인원	17	

- 또한 한국 측은 관련 알제리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초청 인원과 기간은 아래와 같음.

사업분야	전문가 수	기간
(1) 산업 클러스터	5	2주
(2) 산업별 IR	6	2주
(3) 수출 진흥	3	1주
(4) 지역혁신시스템(RIS)	3	1주
(5) 해외투자유치(FDI)	3	1주
(6) 인력개발(HRD)	3	2주
(7) 산업조직전략 검토	4	2주
총 인원	27	

- 한국 측은 사업 시작 후 2개월 내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알제리측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한국 측은 이를 위해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준비본을 알제리 측에 전달하여 알제리 측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 기간은 2008년도 3/4분에서 2009년 4/4분기까지 이며 분야별 일정은 아래와 같음

사업 활동	2008		2009			
	3/4	4/4	1/4	2/4	3/4	4/4
사업 시행 준비						
연구와 보고서 준비						
한국 전문가 파견						
알제리 전문가 초청						
평가 및 완료 작업						

<부록> 알제리 산업개발 자문 2차사업 관련 회의록

8월 10일(일), 산업투자부(MIPI)

참석자, 알제리- 마담 Thouami(장관 보좌관), 알제리 부클리야 하산 교수 등 알제리 산업개발정책 관련 교수 및 담당 공무원 10여명
한국- 주알제 한국대사, 김응중 영사, 김지혜 대리(KOICA), 김도훈(KIET), 김계환(KIET)

알제리(뚜아미),

- KIET와의 협력으로 끝낸 1차 사업 결과에 대단히 만족함. 금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한-알제 T/F 회의 의사록에 이 자문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함. 2차사업을 통해 보다 발전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함.
- 알제리 정부는 현재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대표기업’(Champions nationaux)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번 2차 사업에 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는 사업을 참가하기를 희망함.

한국(정해웅 대사)

- 2차 사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함.
- 특히 빼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정상간 교환 방문을 합의했고, 이것이 양국간 경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알제리(부클리야 하산)

- 산업전략 작성 초기에 그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였음. 한국의 도움은 산업전략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지금까지의 작업은 산업전략의 일반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었고 이 작업에 KIET의 도움이 컸음. 최종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이 알제리 산업전략의 구체화 작업에 고려될 것임.
- 이제 2단계인 산업전략의 구체화 작업에서 계속 KIET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함. 다시 말해 Action Plan의 실행(mise en oeuvre) 단계 진입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함.
- 2차 사업의 내용은 지난 5차 회의 때 협의를 거친 것이며 오늘 회의는 그 연장선상에 있음.

한국(김도훈)

- 2차 사업은 6개의 하위 프로젝트(sous-proje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에 대해 지난 5차 회의 때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양측의 상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의사록(RD:Record of Discussions)에 새로운 항목이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차 사업 범위(scope of work)(presentation, 김도훈)

- 양국간 사업협력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주문도 많으나 연구기관으로서는 KIET가 가지는 한계도 있음. 그러나 KIET가 가지고 있는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한 광범위한 산업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경부와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임.
- 2차 사업은 2개의 주요 축을 갖고 있음 (2 grandes axes), 클러스터의 건설과 IR(investor's relations)임
- 첫째 축은 2개의 pilot cluster로 건설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향후 알제리 전역에 확대 적용할 것임. 이 사업의 최종 결과물로 클러스터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임. 이 플랜에는 필요한 공공기관, 이 클러스터를 통해 발전시킬 산업섹터 등을 제시할 것임. 하위 사업인 3-6은 이 클러스터 개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 3-6의 하위 사업은 클러스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책들임.
- 동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전략도 제시할 것임. 즉 구체적인 클러스터의 예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의 알제리 발전전략도 제시할 것임.
- 둘째 축은 IR임. 클러스터에 끌어들이길 산업 섹터를 선별하여 한국의 잠재

적 투자자들에게 알제리 투자전망을 소개하는 사업임. 산업 섹터로 전자, 섬유, machine tools를 선정함.

- 이 세 가지 섹터를 선정한 이유. 알제리는 이미 철강, 전자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한국과 이미 접촉한 바 있음. 이 섹터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하는 분야임. 양국간 합작 사업이 이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IET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 반면 위 세 가지 산업섹터에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함.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이들 중소기업에 알제리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대기업의 경우 알제리 측에서 직접 접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2차 사업의 운영방식(부클리아)

- 1단계 사업은 참여자 모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작업함. 2단계 사업은 여러 개의 모듈(팀)으로 구성되어 추진됨, 모두 6개의 모듈을 가짐.

- 여기에 7번째 모듈을 추가하기를 희망함. 알제리는 현재 주요 산업 섹터를 재편하여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대 그룹(grands groups)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그룹은 Société Economique du Développement(SED)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기업이 될 것임. 이미 산업과 기업이 있는 경우 인수 합병을 통해 SED로 재편되는 경우도 있고 (비료산업),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 진흥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업 그룹을 만드는 경우도 있음.

- 이들 그룹은 공기업으로 남겠지만 외국 기업과의 합작(partenariat)도 가능함.

- 이러한 섹터별 발전 전략 형성에 KIET가 도움을 주기를 희망함. KIET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음

질문(김도훈)

- 섹터와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지?

답

- 이미 섹터와 기업의 선정이 이루어짐.

(김도훈)

- 하위 사업 (2) 대신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7번째 하위 사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협의해야 할 것임
- (2)와 (7)은 전혀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임. 다른 하위 사업을 없애고 대신 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알제리 측에 요구할 사항도 있음. 특히 한국측 전문가가 알제리에 상당기간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알제리 정부의 협력이 필요함.

알제리

- 2차 사업의 두 축은 투자 진흥과 산업 그룹 형성 지원임. 그리고 SED는 알제리 산업전략의 핵심을 이룸. 그러나 SED에 대한 상호간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김도훈)

- 2차 사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한국 전문가들이 알제리 경제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따라서 한국측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engagement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있음.

한국(대사)

- 알제리가 제시한 7번째 프로젝트는 1-6을 합친 것보다 큰 프로젝트임. 또한 이미 있는 하위 사업을 제거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성이 상실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임.

알제리(부클리아)

- 7번째 하위 사업의 범위, 알제리가 제시하는 그룹 구성 방안을 한국측이 분석 검토하고 그 내적 정합성, viability,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한국(김도훈)

- 이 추가 하위사업을 위해 2명의 전문가와 산업계 대표가 필요할 것임.

전문가는 알제리에 파견되어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것임. 지금까지와의 작업과는 매우 다른 일이 될 것임.

- 7번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업 섹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알제리(부클리아)

- 알제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떻게 대 산업그룹을 만들 것인가이며, 관련 산업 섹터는 분명히 정할 것임.

한국(김도훈)

- 산업전문가 1명, 산업조직론 전문가 1명, 민간부문 대표자 1명이 필요함. 따라서 (2) 하위 사업의 관련 산업을 3개에서 2개로 줄일 필요가 있음.

알제리(부클리아)

- 7번째 하위사업을 (2) ICD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임.

한국(김도훈)

- 7번째 사업은 ICD의 개념을 넘어서는 사업임

한국(대사)

- 2차 사업의 추진에서 단기와 장기 사업을 구분해야 함. SED의 형성은 장기에 해당함. 2차 사업은 단기에 집중하고 SED 관련 사업은 initial study만 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알제리

- 섹터별(SED) 접근과 지역별 접근(클러스터)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SED에 대한 소개(알제리 담당 공무원)

- 산업 섹터와 기업 선정

- 비교우위 분석

- 이미 다수의 기업이 있는 산업 섹터의 경우 인수 합병을 통해 하나의 대 산업그룹으로 육성될 것이며, 국민대표기업(champions nationaux)로 키울 것.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

- 건축(Batiment), 석유화학, 비료

- 그룹의 범위(périmètres), 담당 부처(ministères) 결정됨. 12개 기업 선정.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전자, 기계, 건설자재(시멘트), 의약(Saidal), 담배 등

- 핵심 사업(core business) 탐색, 관련 산업에서 알제리의 장단점 비교분석, 기업그룹의 미래에 대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등을 위한 국제입찰 추진함.

알제리(부클리아)

- 전자 산업을 7번째 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한국(김도훈)

- 2 산업 섹터는 IR, 1 산업 섹터는 SED 대상으로 결정할 필요.

한국(대사)

- 이미 준비된 것에 대해 합의 필요. 이를 통해 즉시 사업을 시작해야 함.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 KOICA와 협의 가능할 것임.

한국(김도훈)

- 추가적인 프로젝트로 합의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관련 산업섹터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알제리(부클리아)

- 이 2차 사업에 넣으면 즉시 시작 가능함. 비료산업의 SED는 이미 만들어짐.

알제리(투아미)

- SED는 이미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음. 국제 컨설팅 업체에 이미 의뢰가 이루어짐. 그러나 한국의 경험이 기여할 바가 많을 것임.

알제리

- 알제리가 한국측으로부터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대사)

- SED 관련 산업을 선정할 때 알제리가 우선 산업으로 생각하는 섹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섹터여야 할 것임.

2차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알제리

- 사업진행 방법, 절차, 결과 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공유해야 함.

한국(김도훈)

- 한국 측 전문가가 이제 알제리에 깊이 관여해야 함. 특히 (2)와 (7) 하위 사업의 경우 그러함.
- (1), (3)-(6) 사업의 경우 한국측 전문가가 알제리의 지역환경, 행정 환경, 인프라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함.
- 동시에 알제리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한국 측 전문가가 단기간 체류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어려움. KIET의 Antenne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투자부 안에 Liaison Office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알제리(투아미)

- 이에 대한 결정은 장관에 달림. 알제리에 없는 관행임.

한국(대사)

- 세계적으로 널리 실행되는 관행임.

한국(김도훈)

- 이 Antenne은 알제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와도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함. 알제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한국에 전달해야 함.

알제리

- 최선의 해법은 산업투자부 안에 설치하는 것임, 그러나 다른 차선책도 있을 것임. 이런 종류의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에 의존할 것.

알제리(부클리야)

- 알제리측 상대자를 하위 사업 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양측 관계를 개별화(모듈에 따라) 해야 할 것임.

알제리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할 것임. 사업별로 인적 관계 망을 구축할 필요.

알제리(부클리야)

- 알제리측 참여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김도훈)

- 한국 방문 시 중국이나 대만 등 주변국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OK

2차 사업 스케줄

한국(김도훈)

- 현재 단계는 implementation survey
- 한국 전문가들이 알제리 방문할 때 이미 알제리 전문가 그룹(counterpart)이 구성되어 있어서 접촉이 가능해야 함.
- 알제리 전문가의 한국 방문은 그룹에 따라 달라질 것임.

알제리(부클리야)

- (1)번의 클러스터 사업 그룹을 우선시해야 할 것.

알제리

- 서류상의 프로젝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는 없는가?

한국(김도훈)

- 계약서는 KOICA와 알제리 정부 사이의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것임. 사업의 실제 진행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될 것임.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임.

알제리(부클리야)

- 서류의 서명이 일의 진행을 방해할지 염려.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되길 희망.
- 알제리 전문가 구성(하위 사업별 인원 배분)에 알제리측에 이니셔티브를

주기를 바랍.

- 알제리 측 총인원(25명)만 명시하면 안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으나 KOICA 측은 총인원만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봄.

- 첫날 회의는 1차 사업 최종 보고서 전달로 끝남.

8월 11일(월), 산업투자부

알제리

- 7번째 하위 사업의 관련 산업섹터로 전자산업 선택. 알제리측에서 원하는 것은 SED를 만들 경우 한국 전문가가 그 SED의 비전, business plan 등의 일관성이 있는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국 경험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임.
- (2) 사업에서 전자를 제거하고 7번째 사업에 첨가할 필요가 있음.
- SED는 외국기업과의 합작도 포함함. 따라서 IR과도 관련됨.

한국(김도훈)

- (2) 사업의 대상 산업을 선정할 때 한국 기업을 상대로 알제리 산업을 promotion하는 것을 염두에 둬. 그러나 SED와 같이 알제리 기업이 있는 경우 한국 기업이 알제리 진출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음.

알제리

- 정부가 나서서 SED를 만드는 것은 알제리에 인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외국 PME의 투자가 중요할 수 있음.

한국(김도훈)

- (2)와 (7)은 성격이 다른 일임. 전자를 (2)와 (7)에 동시에 넣을 경우 전자산업 전문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필요하게 됨. 따라서 전자를 7에 넣을 경우 2에서는 빼야함.

알제리

- 알제리 측은 전자산업 중 자동차산업(산업용 자동차)를 SED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문. 산업용 자동차 분야에 이미 SED가 이미 있음. 이 SED의 비전, 등등에 대해 코칭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음.

한국(김도훈)

- 한국측이 제시한 기계산업은 건설장비를 염두에 둔 것임. 산업용 자동차

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알제리(부클리야)

- 알제리측 인원조절, (1)과 (7)이 제일 중요함. 따라서 중요도에 맞게 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SED 하위 사업의 범위에 대한 토론

- SED는 지주회사(holding)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
- 이미 12개의 SED 지정됨. 13번째 조사중임.
- 이미 study가 완료되었으며, 핵심 사업 선정과 business plan 완성이 9월 말까지 이루어질 것임. 국민적 기업(champions nationaux)로 육성될 것임. 이 과정에서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국(김도훈)

- 2차 사업의 틀 내에 한국 전문가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님. 이 일을 위해서는 2-3개월 동안 알제리에 한국 전문가가 체류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함.

- SED의 창설(creation)과 경영자문(accompagnement)은 다른 일임. 후자를 위해서는 2명 이상의 한국 전문가가 알제리에 1개월 이상 체류해야 함.

알제리(부클리야)

- business plan의 review(appreciation)로 한정해야 할 것. business plan이 완성되면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evaluation(평가)을 해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경영자문(accompagnement)은 불가능함.

한국(김)

- review and assessment 정도로 생각해야 함. 따라서 7번째 하위사업의 제목을 review and assessment on the industrial organisation programm in the electronics industry로 할 것을 제안함.

알제리 전문가 그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대한 토론

알제리(부클리야)

- (1)과 (7)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알제리 전문가가 한국 방문 해야 할 것.

한국(김도훈)

- 알제리 전문가가 한국 방문하기 전에 study 기간이 필요함. 금년 내에 한국 방문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알제리(부클리야)

- 두번 방문이 가능하지 않은가? 금년 내년 한번씩.

한국(김도훈)

- 금년 4/4분기에 한국 전문가들이 알제리에 올 것임. 알제리 전문가들은 한국 측이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할 것임. 한국 방문 일정은 이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알제리 전문가들의 한국 방문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으로 제한될 것임. 만일 알제리 측이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알제리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하면 될 것임.
- 7번째 하위 사업의 추가에 따른 협의 종결됨.

Antenne, Liaison office 설치 문제

알제리

- Antenne, Liaison office 설치 문제는 한국 영사의 참여 하에 협의해야 할 것.

한국(김도훈)

- 서류에 liaison office 관련 사항을 넣길 희망함.
- Liaison office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임.

알제리(부클리야)

- 전문가 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님. 장관의 검토와 재가가 필요함.

한국(김도훈)

- 서류의 서명은 누가 하는가?

알

- 마담 뚜아미가 할 것임.

알제리측은 장관 보좌, 뚜아미 여사가, 한국측은 KOICA를 대표하여 김지희 대리가 서명하기로 함.

한국(김도훈)

- 프로젝트의 제목을 변경함. (Consulting and cooperation for promoting Korea-Algeria Industrial Partnership).

알제리)

- (6) 하위 사업에 대해 의견 표명, 6의 사업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의문 표명. 한국측은 인력양성에 대한 전국적 비전을 갖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을 이 하위 사업의 목표로 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알제리 인력양성 시스템 전반을 다룰 수는 없다는 의견 표명.

알제리(부클리아)

- 오후에 서류를 양측이 검토한 후, 12일 오전 11시에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함.

8월 12일(화) 오전 산업투자부

알제리

- 3-6을 (1)의 하위 사업으로 해야하지 않나 의문 제기.

한국(김도훈)

- 3-6을 (1)의 하위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과 인력 투입을 생각하여 분리된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3-6 하위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짐. 하나는 클러스터 설립과 관련하여 regional or local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국적 차원의 정책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물론 (2)는 (1)의 하위 사업이 아님.

알제리

- 클러스터에 적용한 후에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가? pilot case를 실현한 후에 전국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논리적이지 않은가?

한국(김도훈)

- 어차피 3-6들의 정책기능을 구체화하려면, 전국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클러스터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알제리(부클리야)

- ZIDI에 산업기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각종 기술연구소(laboratory)의 설치도 중요함. 이 두 가지가 RIS의 핵심이 아닌가?

한국(김도훈)

- 기술 연구소 설립은 기술 개발 정책과 연관되어 있음. 기술개발정책을 연구 주제로 제안한 바 있으나, 알제리 측이 RIS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했음. 이 두 가지는 다른 주제임.

알제리

- ZIDI의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해야 함. 알제리가 원하는 것을 한국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 특히 ZIDI개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함.

한국(김도훈)

- pilot cluster를 제안하는 것임.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국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방안임.

알제리

-알제리 전문가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음.

한국(김도훈)

- 이번 사업은 7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됨. 양국 전문가들 사이의 상호이해가 관건임.

알제리

- 클러스터에서 발전시킬 산업섹터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한국(김도훈)

- 처음부터 구체적인 섹터를 명시하는 것은 아님

알제리(부클리야)

- 한국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것임. 전반적 사업 방향을 정하고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정해 나가야 할 것.

알제리

- 알제리 전문가의 Training in Korea 기간을 09년 1/4분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한국(김도훈)

- training in Korea 기간은 알제리 사정에 의존함.

알제리(뚜아미)

- 한국측에 감사

- 한-알제리 그룹간 접촉을 통해 사업의 확대와 심화가 가능할 것
이미 형성된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해 사업 발전이 가능

한국(김도훈)

- 알제리 측의 성실성에 감사. 작은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pilot project를 실현한 후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 프로그램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임. 한국 경험을 익힌 전문가가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임.

사업계약서 서명

한국측, KOICA 김지희 대리

알제리측,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 보좌 Hadjira Touahmi 여사

8월 12(화) 오후 CeVital 방문, General Director Malik Rebrab와
면담

-알제리도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알제리 정부가 이들이 발전할 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환경이 기업가 정신의 발전에 이롭지 못함. 특히 정부의 정책이 문제임.

-예컨대 알제리 산업용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쌈

-알제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연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임. 석유나 가스 수입금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됨. 따라서 교육 훈련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 점에서 한국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함.

3. 출장 주요내용

1)2008/05/26 (월): 대사관 관저 만찬

□ 주요 참석자

- 대사관: 원종찬 대사, 최기열 상무관, 이장 경제통상 담당 서기관
- 멕시코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한국인 교수 및 대학원 학생 등 4명
- 멕시코측: UNAM대 Alfredo Romero 사회학과 교수 (지한파 교수, 70년대에 한국에서 수학), 성명 미상 여교수 (한국 산업발전에 관심), Lopez 교수 (한국에 관심 지대, 미국에서 수학, 한국 산업발전을 논문 주제로 선택), 외 멕시코 교수 1명

2)2008/05/27 (화): 국립 UNAM대 한국산업발전 세미나

□ 주최 및 주관

- UNAM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학생수만 30만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대학) 경제학과

□ 주요 참석자

- UNAM대: UNAM대 경제학과 학과장 Roberto Escalante Semerena 교수, Alfredo Romero 교수, Lopez 교수, 7-8명 교수 기타 대학 및 대학원 학생 (50명 정도)
- 멕시코 정부: 외교부 Manuel Cataneda Resende 아태담당 과장 및 아태담당 공무원 2명, 경제부 지역통상 담당 공무원
- 한국측: 원종찬 대사, 김영민 공사참사관, 이장 경제통상 담당 서기관, 영-스페인어 통역

□ 세미나 진행

- UNAM대 Semerena 학과장의 환영인사
- 원종찬 주멕시코 대사의 축하인사
- UNAM대 교수(사회자)의 발표자 소개
- 주제 발표 (50분 정도 진행):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수출진흥, 인력양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 추진 등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산업구조가 현재와 같이 심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한 후, 한국이 현재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그리고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기계 등을 더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멕시코와의 산업 보완성을 강조

- 멕시코 학자들의 질의응답 (30분 정도 진행): 한국 산업발전 과정에서의 외국인투자의 역할, 80년대 이후의 기술개발 중시로 전환한 계기, 한국 산업발전 과정에서의 rent seeking의 존재 여부, 한국의 인력양성의 성공 요인

특기사항

- 멕시코 외교부가 주제발표문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UNAM대 경제학과 학과지에도 발표문 요지를 게재할 예정

3)2008/05/28 (수) (멕시코시티 - 티후아나로 이동)

총회 주관 Cocktail Party 참석

- 한국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자원도 없고, 가난한 저개발국이었던 한국이 거의 맨손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여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개발을 이루었고, 특히 개도국 중에서는 드물게 보는 심화된 산업구조를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설명

현지 ESPN 라디오와 인터뷰

-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발전 수준 비교 →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상의 보완관계 설명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품, 소재, 기계 등에 강하고, 멕시코는 조립 가공에 강점 보유) → FTA를 통해 양국 사이의 산업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강조
- 한국의 IT 산업발전에 관심: 인프라 및 인력 양성이 성공 요인이었음을 설명

4)2008/05/29 (목): 17차 멕시코 경제학회 총회

2년마다 개최되는 멕시코 경제학회 학술대회 겸 총회

개회세션

- Jose-Luis Contreras (Baja California 주 경제학회 회장) 환영사 (17차 총회 조직위원장 역할 수행): 멕시코가 가진 가공조립 산업만으로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로 부족하므로 멕시코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성장 모델이 필요함을 강조
- Fernando Butler Silva (멕시코 경제학회 회장) 축사: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 Latin America 국가들이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수행해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현실에서,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성장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
- Baja California 주 부지사 (General Secretary) 축사: 17차 총회 참석자 환영, Baja California가 가진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해 줄 것을 강조, 특히 한국이 이 지역에 투자한 규모가 큰 점을 언급 (TV 생산에 있어서 이 지역이 세계 생산의 5% 차지)

□ 1세션: 선진국의 경쟁력 제고 경험

- 영국 (Lee Fulger, 재무부, Growth, Competition and Markets Team): 영국의 1997-2007년 사이의 생산성 추이와 정부 정책 설명, 1997년 이전 미국, 프랑스 등에 비해 더 낮은 생산성을 보이던 영국 경제가 이 기간 동안 높은 생산성을 회복한 것은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있었기 때문
- 미국 (Harrison Grey Morison, Institute of the Americas의 IT 분야 과장): 미국 California 주의 IT 산업 발전의 배경에는 동주에서 이른바 IT Superhighway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힘썼기 때문
- 스페인 (Bernardo Hernandez San Juan, 경제부 자문관): 스페인의 생산성은 1980년대까지 EU 평균을 훨씬 밑돌았으나 최근 EU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경쟁력 수준보다 높아진 것을 설명

□ 2세션: 아시아 주요국의 경쟁력 제고 경험

- Juan Gonzales Garcia 교수 (ANIDIE 소장, 아시아지역 연구 특히 중국연구에 특화): 아시아 지역의 경쟁력 수준이 높음을 강조
- Carlos Uscanga Prieto 교수 (UNAM 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① 이 지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멕시코가 이 나라들의 성장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과의 FTA가 예정대로 추진될 필요성을 언급

- Juan Jose Ramirez Bonilla 교수 (멕시코 칼리지, 아시아연구 센터, 일본경제 전공, 프랑스에서 수학): 21세기에 일본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설명
- Noe Aron Fuentes Flores (전 Jalisco주 경제학회 회장) 토론: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할 필요, 일본은 중국의 개발에 기여하고, 중국이 이번에는 동남아국가들의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 한국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는 발언

□ 3세션: 멕시코 산업별 경쟁력 검토 세션

□ 4세션: 아시아국가들의 산업정책

- 출장자 (김도훈) 발표: 한국의 산업발전, 특히 산업구조의 심화과정을 설명하고 발표 마지막에 한국이 중간재, 기계산업이 발전하여 개도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개도국 (멕시코 포함)의 조립가공 산업구조와는 대단히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 Jose Salvador Meza Lora 교수 (Baja California 주립대) : 중국의 산업특구의 역할, 그 중에서도 심천 산업특구의 구조 및 성공요인 등을 설명, 멕시코가 미국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세계시장 전체를 공략해서 성공했다고 주장
- Mauricio de Maria y Campos 교수 (Universidad Iberoamericana 대): 산업정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조, 멕시코가 미국과의 접경지역에서 Maquiladora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들은 멕시코경제보다는 미국경제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아쉬움 토로
- Juan Carlos Moreno Brid 교수 (CEPAL 대표) 토론: 특이하게도 아시아 지역의 성공이 보조금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산업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충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 재정책중이 필요하고 특히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banking)의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

□ 특기사항

- 멕시코 월간경제지 (Proyeccion Economica)가 발표자의 영문 발표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예정 ☞